

## 덴구다니 가마 터

아리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 터의 부류에 들어가는 덴구다니는 1630 년경부터 1660 년대까지 사용되었으며, 1600 년대 초에 인근 이즈미야마 자석장에서 도석이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기 전용 가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즈미야마의 도석에는 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인 석영과 견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로 여겨져 가나가에 산베에(통칭:이삼평)(~1655 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조선인 남성의 후손이 소유한 문서에는 물과 연료용 장작을 구하기 용이하여 덴구다니가 가마 설치 장소로 처음으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덴구다니는 1965~1970 년에 고고학상 발굴이 진행되었고 1999~2001 년에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굴 조사를 통해 적어도 4 개의 노보리가마(산비탈에 세워진 대규모 가마)의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가마 속 불의 열기로 가마실의 구조가 점차 약해지고, 구릉 위에서 큰 바위가 무너져 가마를 강타하여 손상된 가마를 대신할 가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가마는 2 번째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B’ 가마라고 불리며, 1640 년대~1650 년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길이는 약 70m 이며 21 개 실이 있습니다. 유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실제 가마 터는 정비된 지표면에서 약 80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덴구다니 가마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파편은 가마 옆에 있는 언덕 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마 옆에는 언덕의 작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며, 불완전한 파편과 부서진 파편의 ‘도자기 폐기장 토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 년, 덴구다니 가마 터는 얀베타 가마 터와 이즈미야마 자석장 등 여러 다른 장소와 함께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